

고려시대 유입 중국 도자의 지역별 유통 양상과 해상 교역로*

김윤정*

- I. 머리말
- II. 고려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현황과 자료적 한계
- III. 중국 도자의 지역별 소비와 유통 양상
- IV. 중국 도자의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는 918년에 건립되어 1392년에 멸망하기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오대십국(907~979), 송(960~1279), 요(916~1125), 금(1115~1234), 원(1271~1368) 등 중국의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교류하였다. 한국 역사에서 고려시대만큼 활발한 문물 교류와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전개된 시기는 없었다.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남·북방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는 고려의 다원화(多元化)된 대외 교류 및 교역 활동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이자, 고려시대 도자 문화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2S1A5A2A01047377). 본 논문은 2024년 중국 復旦大·景德鎮市人民政府가 주최한 东亚陶瓷史研究国际研讨会에서 발표한 「高麗王朝(918-1391) 遗址出土的中国瓷器: 现状和意义」와 2025년 SEAA(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에서 발표한 “Importation, Distribution, and Trade Routes of Chinese Ceramics in Goryeo Korea (918-1391)”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일러둔다.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20세기 초부터 일본 연구자들의 논문과 보고서에서 출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¹ 당시 수집된 중국 도자는 대부분 개성, 해주 일대의 고려 고분의 도굴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정확한 출토 상황이나 고고학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도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종류와 수량, 산지 등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였다.² 한반도 이남의 고려시대 사지, 관청지, 무덤 등에서 다양한 품종의 중국 도자가 출토되면서 2000년 이후부터 고려 유적 출토 중국 도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³ 이후에 백자, 청백자, 흑유자 등 중국 도자의 특정 품종을 대상으로 기종·산지·유통 문제에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로 이어졌다.⁴ 최근에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가 대량 공개되면서 단일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백자, 청백자, 청자 등의 품종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는 고려의 대중국 교류 양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물질 자료로서, 기존 문헌 기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문헌 자료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 출토 도자는 교역의 실제 양상과 유통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고려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전반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별로 생산지, 기종, 수량, 분포 범위 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를 추정함으로써 그동안 문헌 기록에 의존했던 고려와 중국 간의 교역 상황을 실물 자료에 기반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 1 三宅長策, 「そのころの思ひ出: 高麗古墳發掘時代」, 『陶磁』 第6卷 6號 (1934), pp. 75-76; 奥平武彦, 「朝鮮出土の支那陶磁器雜見」, 『陶磁』 第9卷 第2號 (1937), pp. 1-7; 小山富士夫, 「定窯雜考」, 『陶磁』 第7卷 第3號 (1935), pp. 9-13.
- 2 최순우, 「韓國出土の宋代陶磁」, 小學館 編, 『世界陶磁全集』 第十二卷 宋 (東京: 1977), pp. 292-294; 金英美, 「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址出土中國瓷器」, 『文物』 第4期 (2010. 4), pp. 77-95;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中國陶磁』 (예경, 2007).
- 3 임진아,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임진아, 「고려유적 출토 송대 자기 연구」, 『사람』 22 (2004), pp. 179-210.
- 4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2011), pp. 146-153; 이종민, 「高麗時代 中國陶磁의 수입양상과 배경」,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pp. 164-174; 김윤정, 「고려시대 유적 출토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아외고고학』 16 (2013), pp. 93-114; 김경인, 「고려유적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특징과 수용 양상」, 『미술사학』 326 (2025), pp. 97-118; 이명옥, 「고려 유적 출토 송대 흑유완의 양식적 특징과 유품 양상」, 『호남고고학보』 79 (2025), pp. 154-174; 이준광, 「고려시대 사찰의 자기 소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pp. 68-70.
- 5 권소현, 「미륵사지 출토 중국도자의 현황과 특징」, 국립익산박물관 編, 『미륵사지 중국도자』 (2025), pp. 38-72; 신준, 「미륵사지 출토 중국 청자 연구」, 같은 책, pp. 76-89; 고미경, 「미륵사지 출토 중국 백자 및 청백자의 현황과 특징」, 같은 책, pp. 95-106.

먼저,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중국도자 약 1,300점과 고려시대 유적 약 49곳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편 800여 점을 조사하여 고려시대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첫째 개성, 해주 등 정치·행정 중심지, 둘째 한반도 이남 지역, 셋째 중·일 해상 교류의 기착지로 기능했던 제주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품종과 기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소비 양상과 유통 구조에 보이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에 유입된 중국 도자를 중국 송·금·원대 도자 수출항 유적의 출토 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현황과 자료적 한계

고려시대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이며, 둘째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었지만 현재 해외 박물관에 소장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사지, 궁궐지, 관청지, 무덤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고려 고분 등에서 도굴되거나 우연히 발견된 중국 도자로, 당시에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이왕가미술관 등이 수집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부여된 유물 번호에 따라서 소장 시기와 출토 지역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개성(開城)’은 개성부립박물관에서 소장되었던 유물에 부여된 명칭으로, ‘개성’이 부여된 도자는 대부분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관(本館)’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지방의 분관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명칭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수집품을 의미한다. ‘덕수(德壽)’는 이왕가박물관을 전신으로 하는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에 부여된 명칭으로 이왕가박물관의 수집품이다. ‘접수’는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소장품에 부여된 명칭으로, 대부분 20세기 전반경에 도굴된 것이다. ‘신수(新收)’는 1945년 이후 국립박물관이 수집한 유물에

6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궁궐지, 관아·관청지, 사지, 무덤, 주거지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산지를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편 등의 중국 도자는 제외하였다. 특히,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중국 도자가 출수된 신안선, 태안 마도, 제주 신창리 해저 유적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저유적에서 출수된 중국 도자는 내륙 유적 출토품과 품종 등에서 다른 점이 많아서 당시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신창리 유적처럼 제주 내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와 연관성이 있는 유적은 당시 출항지와 교역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유적 출토 중국도자 수량(건/점)〉 Quantity of Chinese Ceramics (Pieces/Items) Excavated from Goryeo Dynasty Site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rtifact No.	Gaeseong	Gojeok	Deoksu	Bongwan	Jeomsu	Sinsu	Total
Quantity	13 (21 pieces)	4 (7 pieces)	629 (713 pieces)	144 (189 pieces)	38 (38 pieces)	216 (238 pieces)	1044 (1206 pieces)

부여된 명칭이며, 정식 발굴은 아니지만 한반도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예는 약 1,206점 정도를 확인하였다(table 1).⁷ 이 중에 출토지가 개성 부근으로 기재된 예는 425건 502점이며, 출토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417건 531점이다.⁸ 출토지가 기재되지 않은 중국 도자도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여러 기록으로 볼 때 개성 일대와 황해도 해주 등지의 고분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성은 고려 왕궁이 위치하는 수도였기 때문에 개성군에 역대 왕후 귀족의 고분이 무수히 많고 그 주변의 장단군, 풍덕군 등지의 고분에서 고려자기를 도굴했다는 기록이나 기사를 접할 수 있다.⁹ 황해도 해주는 고려시대에 서해안 방위의 중심도시이자 개성을 지키는 수도 방위부로서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다. 해주에서 자주(磁州), 정주(定州), 길주(吉州), 여주(汝州) 등의 각종 도자기 종류가 많이 출토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⁰ 특히, 해주만에서 근거리로 위치한 용매도에서 많은 고려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경덕진요 청백자, 자주요, 정요의 금채자기 등이 알려져 있다.¹¹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해외 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는 약 93점을 파악하였으며, 유물의 출처가 한국인 경우로 한정하였다(table 2). 해외박물관에 소장된 예는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세기 초에 이미 서양 연구자들 사이에서

7 국립박물관 소장 중국 도자는 기본적으로 e뮤지엄 사이트를 통해 파악하였다. 다만 필자의 확인이 미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한 수량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https://www.emuseum.go.kr/main>).

8 유물의 건수와 점수가 차이 나는 것은 여러 점을 한 건으로 기재하여 하나의 유물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시기에 입수된 중국 도자 중에 2점부터 많게는 12점까지의 동일한 기종에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 경우가 적지 않다.

9 李王家博物館, 「高麗窯の前後二陶工の關係」, 李王職 發行,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陶磁器之部』(1932); 小山富士夫, 「高麗陶磁序說」, 河出書房 編, 『世界陶磁全集』13卷 朝鮮上代·高麗篇(東京: 1955), p. 221; 『大韓每日申報』(1909. 11. 18).

10 三宅長策, 앞의 글, pp. 75-76. 통감부 법무원 재판장 미야케 조사쿠(三宅長策, 1868~1969)는 1900년 초에 해주에서 繪高麗, 페르시아인 블루(공작유), 鶯鶯文(또는 木理文), 白定, 黑定, 柿天目, 建盞, 禾天目(白土), 鼈盞, 북방청자 등의 다양한 중국 도자가 출토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1 奥平武彦, 앞의 글, pp. 1-7; 小山富士夫, 앞의 글, pp. 9-13; 최순우, 앞의 글, p. 293.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백자가 송대 정요 백자인지 고려백자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연구의 화두였다.¹² 당시 서양에서 송대 백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류가 정작 중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교류는 인정하였지만,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들이 수입품이라고 보기에는 출토량이 너무 많고 운송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고려백자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¹³ 필자가 파악한 해외 소장품 93점 가운데 정요 백자 15점, 경덕진요 청백자 32점, 광동성·복건성 일대의 백자가 19점으로 확인되어 백자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도 1,206점 중에 백자 및 청백자류가 약 645점으로 약 53%를 차지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특징에서 볼 수 있어서 대체로 고려에 송대 백자나 청백자의 유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 외에 궁궐지, 관청지, 사지(寺址), 무덤 등 고려시대 유적 약 49곳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품종과 수량 등을 조사하였다(table 3). 궁궐지는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조사하였다. 서부건축군에 한정된 발굴이라는 점에서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개성에서 유통된 중국 도자를 고찰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로 판단된다. 관청지는 대중국 교역로의 중간 기착지였던 신안 흑산도 유적과 일본의 대중국 교역에서 기착지 역할을 했던 제주도 항파두리성 유적에서 용천요 청자의 출토 비중이

Table 2. 〈해외박물관 소장 고려유적 출토 중국도자 수량〉 Quantity of Chinese Ceramics Excavated from Goryeo Dynasty Sites in Overseas Museums

Museum	Qty.
V&A Museum	49
Peter the Great Museum of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7
Museum of Fine Arts, Boston	13
The Cleveland Museum of Art	4
Freer Gallery of Art	12
Tokyo National Museum	7
Museum Yamato Bunkakan	1
Total	93

12 S. C. Bosch Reitz, "Recent Accession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11, no. 2 (February 1916), p. 46; Bernard Rackham,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K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pp. 17-18; John Platt, "Korean Potte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36, no. 205 (1920), pp. 202-203.

13 Robert Lockhart Hobson, *Chinese Pottery and Porcelain*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15), pp. 150-151; Lorraine D'O Warner,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16, no. 61 (1918), pp. 18-19; Lorraine D'O Warner,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6, no. 3 (1919), pp. 46-52.

Table 3. <고려시대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수량> Quantity of Chinese Ceramics Excavated from Goryeo Dynasty Sites

Sites	Palace site [1]	Government office sites [10]	Tombs [13]	Temple sites [25]
Qty.	54	91	52	560

높은 특징을 보인다.¹⁴ 사지는 전체 유적 가운데 중국 도자의 출토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 1곳, 경기도 5곳, 강원도 4곳, 충청도 4곳, 경상도 3곳, 전라도 5곳, 제주도 3곳 등 한반도 이남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지역별로 유입된 중국 도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III장에서 사지 출토 중국 도자의 품종과 기종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 점을 보이는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무덤은 13곳을 조사하였으나 고려시대 유입된 중국 도자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유적 수와 출토된 중국 도자의 수량이 적은 편이다.¹⁵ 다만 무덤 유적 중에 1940년에 발견된 함경북도 성진(城津, 현재 김책시) 탑평 고분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로 주목된다.¹⁶ 무덤에서 출토된 <균유완(鈞釉碗)> 3점, <백지흑화사이병(白地黑花四耳瓶)> 2점, <백유완> 4점, <백유접시> 2점, <흑유완> 1점, <녹유잔> 1점, 송대 동전 12점 중에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⁷ 이 무덤에서 출토된 동전은 송대 송령연간(1102~1106)에 주조된 <송령통보(崇寧通寶)>와 <송령중보(崇寧重寶)>이지만 <균유완>과 <백지흑화사이병>은 금대 말에서 원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무덤이 발견된 성진군 탑평은 현재 함경북도 김책시로, 1258년부터 1356년까지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이었다. 박물관에 소장된 금·원대 도자의 경우에 출토지가 함경도 일대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덤의 피장자도 고려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이다.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는 고려시대에 유입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14 고려의 관청 관련 유적은 강화 월곶리·옥림리(3점), 강화도 중성(3점), 신안 흑산도(15점), 울주 연자도(2점), 원주 중앙동(1점), 제주 김녕리(1점), 제주 대정읍(1점), 제주 목관아지(2점), 제주 일도1동(읍성, 1점), 제주 향파두리성(62점) 등 10 곳을 조사하였다.

15 고려의 무덤 유적은 강화 대산리 고려고분군(5점), 강화 월곶리·옥림리(1점), 단양 현곡리(3점), 대전 가오동 고분(2점),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9점), 문공유묘(3점), 문종 경릉(4점), 안산 대부도 육골 고려 고분군(4점), 안성 매산리 고분(1점), 용인 신갈동(5점), 원주 법천리 고분(9점), 청주 주중동(1점), 성진군 탑평[현 함경북도 김책시](7점, 동전 12매) 등 13곳을 조사하였다.

16 「出た逸品數々果して明太祖生母墳墓の地か城津郡下古墳の謎」, 『京城日報』(1940. 06. 23).

17 1942년에 성진지청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되어 본관 14672부터 14679까지 번호가 부여되었지만(인계품목록 D011-103-002-001 참조), 현재 <白地黑花四耳瓶>(14673) 1점, <백자완>(14677) 1점, <백자완>(14674) 2점, <흑유완>(14676) 1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지만, 대부분의 유물은 대략적인 출토 지역 외에는 구체적인 출토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소장품과 한반도 이남의 유적에서 발굴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 편중과 맥락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III. 중국 도자의 지역별 소비와 유통 양상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품종, 기종, 산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분포 양상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III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군사·행정 중심지였던 해주 지역, 둘째,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한반도 이남 지역, 셋째, 제주 지역이다. 이 세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성·해주 일대 출토 중국 도자

20세기 전반에 개성과 해주 지역에서 발견되어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된 중국 도자 1,033점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 공동 발굴을 통해 고려 궁성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도자 53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및 해외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상당수는 개성과 해주 일대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개성, 해주 일대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유약과 장식 기법으로 분류하고, 산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중이 높은 백자, 청백자, 흑유자, 청자 등의 양상을 보고, 그간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녹유자, 갈유·황유자, 자주요계 자기 등 개성, 해주 일대에서 주로 출토되는 중국 도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개성, 해주 일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 중에 백자 9.7%, 청백자 51.8% 정도로 백자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백자는 북송에서 금대 하북성 정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약 106점으로 확인된다. 청백자의 산지는 강서성 경덕진요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복건성·광둥성 일대 여러 요지에서 제작된 예도 약 40% 정도로 적지 않게 확인되지만 요지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¹⁸

〈Table 4〉〈개성, 해주 일대 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산지 분석〉 An Analysis of the Origins of Chinese Ceramics Excavated from Sites in the Kaesong and Haeju Regions
(* Ratios Are Rounded to One Decimal Place)

By Glaze Type and Technique	Kaesong /Haeju	Manwoldae Palace Site	Unknown	Per. (%)	Kiln Sites	Region	Period
White ware	62	4	40	9.7	Ding kiln	Northern	Song, Jin
Qingbai ware	262	31	271	51.8	Jingdezhen kiln, Chaozhou kiln, Kiln sites in the Anhui, Guangdong, and Fujian region	Southern	Song, Yuan
Black glaze	57	5	83	13.3	Ding kiln, Cizhou-type[Zibo kiln, Lushan Duandian kiln, Dangyangyu kiln], Jian kiln, Jizhou kiln	Northern+Southern	Song, Jin
Celadon glaze	65	10	29	9.8	Yuezhou kiln, Yaozhou kiln, Longquan kiln	Northern+Southern	Song, Yuan
Green glaze	9	-	25	3.1	Ding kiln, Cizao kiln	Northern+Southern	Song
Brown · Yellow glaze	20	-	12	2.9	Hunyuan kiln, Cizao kiln, Kiln sites in the Guangdong and Fujian region	Northern+Southern	Song, Jin
Dark brown glaze	5	3	25	3.0	Ding kiln, Cizhou-type[Dangyangyu kiln]	Northern	Song, Jin
White glaze	11	-	14	2.3	Cizhou-type[Lushan Duandian kiln]	Northern	Northern Song
White ground with black decoration	7	-	11	1.7	Cizhou-type [Lushan Duandian kiln, Bacun kiln]	Northern	Jin
White ground with sgraffito decoration	0	-	7	0.6	Cizhou kiln	Northern	Jin
Marbled ware	0	-	6	0.6	Cizhou-type[Dangyangyu kiln]	Northern	Song, Jin
Peacock blue glaze	3	-	1	0.4	Cizhou kiln	Northern	Yuan
Jun glaze	0	-	5	0.5	Jun kiln, Kiln sites in Shandong, Hebei, and Shanxi region	Northern	Jin, Yuan
Red and Green Enamel	1	-	0	0.1	Kiln sites in Hebei, and Shanxi region	Northern	Jin
Copper red glaze	0	-	2	0.2	Jingdezhen kiln	Southern	Yuan
Total	502	53	531		1086		

이 중에서도 광둥성 동남부에 위치한 조주요(朝州窯) 청백자의 경우에는 마고형주자(麻姑形注子), 봉수주자(鳳首注子), 고족배, 합, 연판문 소호 등 개성 일대에서만 다양한 기종이 확인된다.¹⁹ 조주요는 청백자를 주요 생산품으로 제작하여 동남아, 한반도, 일본 등으로 수출하였

18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 중인 고려 유적 출토 청백자 564점 중에 230여 점이 복건성 및 광둥성 일대 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성 고려 궁성 서부건축군에서 출토된 청백자도 31점 중에 광둥·복건성에서 제작된 예는 10점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19 郭學電, 「宋代潮州筆架山窯研究三題: 興衰史, 外銷開城的產品及“麻姑進酒壺”之正名」, 中國華僑出版社. 編『中國

으며, 특히 일본 하카타 일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백자 중에 조주요산이 약 20% 정도 확인되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⁰ 고려 유적에서 청백자류가 많이 출토되는 현상은 개성·해주 이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시에 송대 청백자가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개성, 해주 일대 출토 청백자의 제작 시기는 10세기 후반에서 13세기경까지 확인되어서 고려의 대중국 도자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흑유자는 약 13.3% 정도로 청백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려에 많이 유입된 품종이다. 개성, 해주 외에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도 출토되지만 두 지역 간의 차이점은 기종 구성과 품질에서 볼 수 있다.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는 완류만 확인되는 반면에 개성, 해주 일대에서는 83점의 완류 외에도 매병(9), 호(10), 소호(8), 주자(9), 소주자(3), 병류(11), 통형잔(3), 등잔(1) 등으로 기종이 다양하고 품질이 높은 예가 많다. 흑유자의 생산지도 하북성 정요, 자주요, 하남성 노산단점요, 산서성 치박요, 복건성 건요계, 강서성 길주요 등으로 중국의 남방과 북방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혼재되는 특징을 보인다.²³

청자는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며, 요주요산 72점, 월주요산 12점, 용천요산 9점으로 요주요산 청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주요 청자의 기종은 완 46점, 접시 17점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이외에 발, 소호, 잔 등은 소량 확인된다. 요주요산 청자는 한반도 이남 지역의 사지에서도 주로 완과 접시류가 출토되어 공통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주요 청자류는 대체로 송대 요주요지의 편년안에 따르면 11세기 중후반에서 12세기 1/4분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⁴ 개성, 해주 일대에서 출토되는 월주 청자는 주로 오대에서 북송 초기에 제작된 주자(6), 타호(2), 팔각호(1), 유개발(1), 잔탁(1)이며,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주로 완이 출토되는 양상과 다르다. 용천요 청자는 남송에서 원대에 생산된 소주자(1), 발(2), 고죽배(2),

潮州窯』(北京: 2015), pp. 378-380; 김경인, 「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백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2), p. 68.

20 田中克子, 「日本福岡市博多遺址群出土の潮州窯産品與外銷」, 中國華僑出版社 編, 『中國潮州窯』(北京: 2015), p. 370.

21 이종민, 앞의 글, pp. 153-154.

22 김윤정, 앞의 글, pp. 97-110; 김경인, 앞의 글(2025), pp. 110-117.

23 이명옥, 앞의 글, pp. 160-167.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흑유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대 유입된 흑유완은 복건성 건요, 하북성 자주요, 하남성 당양옥요를 언급하였고, 남송대에는 복건성 건요, 동장요, 자주요, 우림정요지, 강서성 길주요산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4 陝西省考古研究所, 『宋代耀州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8), pp. 543-547, 559, 562, 582. 북송대 요주요지는 早期(960-1022), 中期(1023-1085), 晚期(1086-1127)로 편년되는데, 개성·해주 및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출토되는 완, 접류는 주로 중기 후반인 11세기 중엽에서 만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접시류(3) 등 소량이다. 개성, 해주 일대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는 고려 10세기에서 11세기 전반까지 월주요산 청자에서, 11세기 중후반에서 12세기 전반경까지 요주요산 청자로 대체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남송에서 원대 이후에는 용천요 청자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자주요계 자기는 하북성 자주요(磁州窯)를 비롯하여 하남성 수무현(修武縣) 당양육요(當陽峪窯), 노산현(魯山縣) 단점요(段店窯), 우주시(禹州市) 배촌요(扒村窯)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장유(醬釉), 백유, 백지흑화(白地黑花), 백지척화(白地剔花), 교태(絞胎), 공작남유(孔雀藍釉) 등의 자주요계 자기는 송, 금, 원대를 거치며 고려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table 4). 시대별로 유약과 장식 기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고 기종도 매병, 장경병, 통형잔, 주자, 타호, 호, 접시, 반 등으로 특수 기종과 일반 기종이 섞여 있다. 개성, 해주 지역에서만 중국 북방의 자주요계 자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IV장에서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를 재고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이다.

자주요계 자기와 함께 중국 북방 도자의 대표적인 예인 균유(鈞釉) 자기는 금대 말에서 원대로 추정되는 5점이 확인되었다. 균유 자기는 중국에서도 내몽고(內蒙古) 토성자고성(土城子古城) 교장, 황화(黃驊) 해풍진(海豐鎭), 청도(靑島) 교주(膠州) 판교진(板橋鎭), 산서성 대동시(大同市) 풍도진(馮道眞, 1258~1327) 무덤 등 북방 지역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²⁶ 균유 자기는 소량이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성진시 등 이북 지역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이남과 제주 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없다.

개성, 해주 일대에서 출토된 녹유, 황유, 갈유자기는 앞서 살펴본 자주요계나 균유 자기와 달리 중국 남방 복건성 자조요(磁竈窯)에서 제작된 예가 다수 확인되었다. 두 점의 <녹유소주자>(덕수2309, 덕수748)는 동일한 형태로 모두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fig. 1). <녹유소주자>의 전체적인 형태, 크기, 어깨의 연판문이나 몸체 세로선의 장식이 자조요 지주산요지(蜘蛛山窯址)에서 수집된 녹유편들과 거의 동일하다(fig. 2).²⁷ 이러한 <녹유소주자>는 12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가시이(香椎) 지역의 토광묘(土壙墓)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다(fig. 3).²⁸ <녹유갈채병>(본관2533)은 구

25 김윤정, 「한반도 유입 중국 磁州窯系 瓷器의 양상과 그 의미」, 『야외고고학』 39 (2020), pp. 46-53.

26 모리 다쓰야(森達也), 「원대의 도자기 유통: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아시아 陶磁文化 연구』 제3호 (2020), pp. 105-106.

27 福建省文物局 主編, 『磁竈窯址: 福建晉江磁竈窯址考古調查發掘報告』 (北京: 科學出版社, 2011), 圖版 25-3, 4, 5, 27-3, 4.

28 福岡市教育委員会, 『香椎B遺跡: 福岡市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第621集』 (2000), pp. 47, 49, 94, 100. 일본 후쿠



Fig. 1



Fig. 2



Fig. 3

Fig. 1. <녹유소주자> *Small Ewer with Green Glaze*, 12th century, Song Dynasty, Height 7.7cm, Excavated near Kaesong, National Museum of Korea, Deoksu 2309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2. <조별소주자편> *Bisque-fired Small Ewer Fragment*, 12th century, Song Dynasty, Collected from Zhizhushan Kiln Site, Cizao Kilns, Fujian Museum,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Fujiansheng wenwuju,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pl. 25-3)

Fig. 3. <녹유소주자> *Small Ewer with Green Glaze*, 12th century, Song Dynasty, Height 6.6cm, Excavated from a Wooden Coffin Tomb in Kashii, Fukuoka Prefecture, Fukuoka City Archaeological Center (Fukuoka City Archaeological Center, <https://bunkazai.city.fukuoka.lg.jp/maibun/>)

연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자조요 토미암요지(土尾庵窯址)에서 제작된 갈채 장경병과 유사하다. 고리를 물고 있는 수면(獸面) 형상을 첩화기법으로 장식한 점, 목 부분에 나선형의 음각 선문, 산화철 안료로 그린 덩굴문 등에서 동일 산지임을 알 수 있다(figs. 4, 5).²⁹ <녹유군지> (덕수1346)도 자조요 토미암요지에서 제작된 예와 유사하다(figs. 6, 7).³⁰ 녹유 자기는 기존에 내몽고자치구 임둥(林東) 남산요(南山窯)에서 제작되어 요대 도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대부분 산지가 불분명하였지만³¹ 향후 자조요를 비롯한 광둥, 복건 일대 요지 출토품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황유와 갈유자기는 호, 장경병, 매병류의 저장 용기가 많은 편이며, 남방의 자조요산 도자와 북방산 도자도 확인된다. 자조요에서는 유색이 황색조를 띠면서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그린 도자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황유철화초문장경병> (덕수4061)의 목부분과 유사한 황유자편이 자조요 토미암요지에서 출토되었다(figs. 8, 9).³² 철화안료가

오카시 가사이 지역에서 발견된 토광 내에 목관이 안치된 묘제였으며, 자조요 <녹유주자>는 용천요계 <청자소완>, <토제발> 3점, <토제접시> 9점과 함께 목관 밖에서 출토되었다.

29 福建省文物局 主編, 앞의 글, 圖版 128-4.

30 福建省文物局 主編, 위의 글, 圖版 126-4.

31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중국도자』 (국립중앙박물관, 2007), p. 327, 329. 도록에 수록된 <녹유사각반> (본관211)은 내몽고자치구 임둥 남산요산으로 추정되었지만 자조요에서 유사한 편이 확인되어 복건성 자조요산으로 추정된다(福建省文物局 主編, 위의 글, 圖版 45-1 참조).



Fig. 4. <녹유갈채병> *Green-glazed Bottle with Brown Decoration*, 12th century, Song Dynasty, Height 7.6cm, National Museum of Korea, Bongwan 2533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5. <초벌갈채병> *Bisque-fired Bottle with Brown Decoration*, 12th century, Song Dynasty, Excavated from Cizao Kilns, Fujian Museum,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Fujiansheng wenwuju,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pl. 128-4)



Fig. 6. <녹유군지> *Green-glazed Kundi*, 12th century, Song Dynasty, Height 18.5cm, National Museum of Korea, Deoksu1346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7. <녹유군지> *Green-glazed Kundi*, 12th century, Song Dynasty, Excavated from Cizao Kilns, Quanzhou Maritime Museum (Fujiansheng wenwuju,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pl. 126-4)

32 福建省文物局 主編, 앞의 글, 圖版 33-5.

어깨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황유철채사이호>(덕수3495)는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데, 일본 규슈(九州) 북부나 북동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조요산 항아리와 유사하다(fig. 10). 하나는 규슈 오이타현(大分県) 북부의 우사시(宇佐市)에서 출토되어서 1139년으로 추정되는 경통(經筒)을 담았던 <황유철채사이호>이다(fig. 11).³³ 이외에 후쿠오카현 히라노(平野)에 위치한 백산신사(白山神社)의 1109년 경통을 담았던 용기와도 매우 유사하다.³⁴ 이러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송대 자조요 자기가 대체로 12세기 전반경에 고려에 유입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구연과 어깨 일부분만 시유된 <갈유매병>(덕수3335, 덕수244) 두 점도 일본 하카타(博多)의 12세기 중후반 유적에서 출토된 자조요산 <갈유매병>과 유사하다(figs. 12, 13).³⁵ 매병에 쓰인 묵서(墨書) 명문도 ‘오강(吳綱)’으로 판독되어서, 송상의 활동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남동부에 위치하는 복건성 남부 진강(晉江) 일대에 위치한 자조요와 광동성 조주요는 송, 원대 무역 자기를 생산한 가마로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자조요 자기는 철화 안료로 문양을 그린 대반(大盤) 정도만 알려져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황유, 갈유, 녹유로 제작된 사이호, 장경병, 주자, 사각반, 군지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자조요산 도자의 품종과 기종은 남해 1호선 출수품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기존에 동아시아 도자 교역망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고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개성 부근에서 산서성 혼원요산으로 추정되는 도자나 남방의 자조요산 도자가 새롭게 확인되어 고려에 유입된 중국도자의 출항지와 유통 상황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³⁶

33 <도제경통외용기(陶製經筒外容器)>, 国立文化財機構所蔵品統合検索システム, 2026년 3월 30일 검색, 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kyuhaku/YJ31?locale=ja.

34 長谷部樂爾 監修, 『日本出土の中國陶磁』(東京: 平凡社, 1995), pl. 30; <전백산신사경통출토품(伝白山神社経塚出土品)>, 福岡県の文化財, 2026년 3월 30일 검색, <https://www.fukuoka-bunkazai.jp/frmDetail.aspx?db=1&id=106>.

35 森本朝子, 『日本博多遺址及周圍地區出土的磁窰窯系陶瓷器』, 科學出版社 編, 『磁窰窯址-福建晉江磁窰窯址考古調查發掘報告』(北京: 2011), pp. 414-415, 421-422. 일본에서 주둥이와 어깨 부분에 갈유가 시유된 조주요산 소구병(小口瓶, 매병)이 출토되는 유적의 연대는 12세기 중후반 경으로 추정되어서, 소구병은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에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3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녹유주자>(덕수1696, 덕수 4518), <녹유병>(덕수4327), <녹유과형주자>(덕수2571), <녹유호>(덕수2663, 6066), <갈유호>(덕수1946) 등이 자조요산으로 추정된다.



Fig. 8. <황유 철화초문 장경병>Long-necked Bottle with Yellow Glaze and Iron-painted Grass Decoration, 12th century, Song Dynasty, Excavated near Kaesong, Height 24.8cm, National Museum of Korea, Deoksu4061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9. <황유 철화초문 장경병편>Long-necked Bottle Fragment with Yellow Glaze and Iron-painted Grass Decoration, 12th century, Song Dynasty, Excavated from Tuweian Kiln Site, Cizao Kilns, Fujian Museum,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Fujian Sheng Wenwuju,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pl. 33-5)



Fig. 10. <황유철채사이호>Four-eared Jar with Yellow Glaze and Iron-brown Decoration, 12th century, Song Dynasty, Height 31.5cm, Excavated near Kaesong, National Museum of Korea, Deoksu3495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1. <황유철채사이호>Four-eared Jar with Yellow Glaze and Iron-brown Decoration, Dated 1139, Height 43 cm, Excavated from Usa City, Northern Oita Prefecture, Kyushu, Kyushu National Museum (Kyushu National Museum, 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items/kyuhaku/YJ31?locale=ja)



Fig. 12. 〈갈유매병〉Brown-glazed Meiping, 12th century, Song Dynasty, Inscribed with “Wu Gang” (吴纲), Height 25.5 cm, Excavated near Kaesong, National Museum of Korea, Deoksu3335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3. 〈갈유매병〉Brown-glazed Meiping, 12th century, Song Dynasty, Excavated from Hakata Site, Fukuoka City Archaeological Center (Fujiansheng wenwuju,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pl. 120-1)

2. 한반도 이남 및 제주 지역 사지 출토 중국 도자

고려시대 사지(寺址)는 한반도 이남 및 제주 지역까지 고르게 분포할 뿐만 아니라, 중국 도자의 출토 사례가 가장 풍부한 유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도자의 지역별 유입 양상과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어 적합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한반도 이남 및 제주 지역에서 발굴된 사지 25곳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에 중국 도자의 수량이 적거나 산지 추정이 어려운 3곳을 제외하였다.³⁷

먼저, 한반도 이남 지역에 분포한 고려시대 사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품종과 기종에서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 도자의 품종은 대체로 송대 11세기에서 원대 13세기경에 제작되는 경덕진요 청백자, 정요 백자, 요주요 청자, 흑유자, 광동·복건성 일대 백자의

37 사지 출토 중국도자는 발굴보고서를 참고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참고문헌에 표기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이 언급된 사지보고서는 각주 처리하였다. 25곳 중에 강릉 신복사에서 월주요 〈청자완〉 1점, 강진 월남사에서 〈흑유완〉 1점씩만 출토되었고, 원주 거둔사에서 백자편 3점이 출토되었으나 산지를 비정할 수 없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5.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오대·송·금·원대 도자〉 Ceramics of the Five Dynasties, Song, Jin, and Yuan Periods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Temple Sites(Qty.)	Jingdezhen Qingbai Ware	Ding Ware	Yaozhou Ware	Yuezhou Ware	Black-glazed ware	Longquan Ware	Guangdong and Fujian White Wares	Others
GyeonggiProv. v. [5]	Anseong Bongeobsa Temple site[16]	○[11]	-	○[1]	-	○[1]	-	○[2]	Xing Ware[1]
	Yeoju Godalsa Temple site[37]	○[18]	○[4]	○[4]	○[1]	○[5]	-	○[2]	Xing Ware[3]
	Yeoju Wonhyangsa Temple site[9]	○[2]	○[1]	○[3]	-	○[3]	-	-	-
	Yongin Mabukri Temple site[7]	○[2]	○[2]	-	-	○[1]	-	-	Dark brown glaze[1], Blue&White Porcelain[1]
	Paju Hyeemwon site [128] ³⁸	○[28]	○[14]	○[7]	-	-	-	○[4]	Marble Ware[7] Green glaze[3]
Seoul[1]	Seoul Samcheonsa Temple site[11]	○[5]	-	○[2]	○[3]	○[1]	-	-	-
Gangwon Prov. [2]	Gangneung Gulsansa Temple site[17]	○[7]	○[1]	○[2]	○[6]	○[1]	-	-	-
	Wonju Beopcheonsa Temple site[19]	○[3]	-	-	○[15]	-	-	○[1]	-
Chungcheong Prov. [4]	Nonsan Gaetaesa Temple site[5]	○[5]	-	-	-	-	-	-	-
	Boryeong Seongjusa Temple site[16]	○[5]	-	○[2]	○[4]	-	-	-	Xing Ware[4] Green glaze[1]
	Buyeo Wangheungsa Temple site[11]	○[4]	○[1]	-	-	○[2]	-	○[1]	Unknown[3]
	Seosan Bowonsa Temple site[5]	○[1]	-	-	○[3]	-	-	○[1]	-
Gyeongsang Prov. [3]	Gyeongju Bulguksa Temple site[40]	○[19]	○[3]	○[4]	○[1]	○[5]	-	○[2]	Changsha Ware[3] Unknown[4]
	Gyeongju Hwangryongsang Temple site[38]	○[4]	○[6]	○[2]	○[17]	-	-	○[4]	Xing Ware[4] Unknown[Multi .]
	Sangju Seogokdong Temple site[4]	-	-	-	-	-	-	○[4]	-
Jeolla Prov. [4]	Naju Songwoldong site[3]	○[3]	-	-		-	-	-	-
	Namwon Silsangsa Temple site[35]	○[14]	○[3]	-	○[13]	○[3]	-	-	Xing Ware[2]
	Iksan Mireuksa Temple site[267] ³⁹	○[100]	○[56]	○[22]	○[32]	○[3]	-	○[1]	Xing Ware[54] Changsha Ware[1]
	Iksan Sajaam site[5]	○[4]	○[1]	-	-	-	-	-	-
Jeju Prov. [3]	Beophwasa Temple site[9]	○[2]	-	-	-	-	○[6]	-	-
	Sujeongsang Temple site[11]	○[2]	-	-	-	-	○[4]	○[1]	Unknown[1]
	Wondangsa Temple site[2]	-	-	-	-	-	-	○[2]	-
	Total	237	92	49	95	25	10	25	89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table 5). 청백자는 송대 경덕진요산의 비중이 높으며, 광동·북진
성산 조질 청백자가 한두 점에서 네 점 정도 소량 확인된다. 이 외에 사지에서 출토된 당·오대 월주

요산 청자나 형요산 백자는 유입 시기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올라가는 경우이다(table 5).

개성, 해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품종에 관계없이 주자, 매병, 향로, 잔탁, 배개 등 기종이 매우 다양한 데 반해서 한반도 이남의 사지에서 출토되는 기종은 접시, 발, 완에 한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륵사지의 경우에도 월주요 청자 32점과 형요 백자 54점은 모두 당대 말에서 오대로 편년되는 옥벽저(玉璧底)나 옥환저(玉環底), 옥연(玉緣)의 구연을 가진 완으로 통일신라 말인 9세기에서 고려 10세기경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백자도 북송대 기종은 10판이나 12판 화형접시에 한정되며, 11세기 말에서 12세기 1/4분기경의 유적에서 출토되어 북송 말기에 경덕진 호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fig. 14).⁴⁰ 남송대에도 <압출양각 연지어문절요접시>, <음각선문절요접시>, <음각동자문발>, <화형발> 등의 특정 기종만 출토되는 양상이다(fig. 15).⁴¹ 북송 정요 백자도 접시나 발 종류가 주로 보이며, 요주요 청자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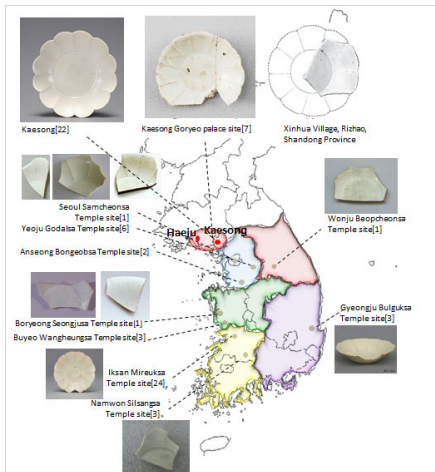


Fig. 14.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북송대 청백자 화형접시 현황>Current Status of Northern Song Qingbai Flower-shaped Dishes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dited by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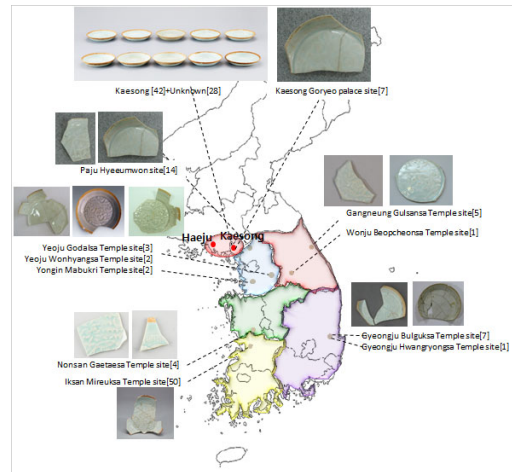


Fig. 15.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남송대 청백자 절요접시 현황>Current Status of Southern Song Qingbai Dishes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dited by the author)

3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본문)』 (2003), pp. 273-279. 해음원에서 출토된 중국도자의 총수량은 128점이나 보고서에 수록된 예는 53점이며, 필자는 57점을 실건 조사하였다. 보고서에는 정요 백자와 경덕진요 청백자류를 합하여 111점, 청자 7점, 교태 7점, 녹유자 3점이 출토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39 미륵사지 출토 중국도자의 품종과 수량은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도자-중국도자』 (2023)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40 김윤정, 앞의 글(2013), pp. 100-101. 북송대 화형접시는 경기도 봉업사지[2], 고달사지[6], 서울 삼천사지[1], 강원도 법천사지[1], 충청도 상주사지[1], 왕흥사지[3], 경상도 불국사지[3], 전라도 실상사지[10], 미륵사지[24]에서 출토되었다.

41 남송대 절요접시는 경기도 고달사지[3], 원향사지[2], 마북리사지[2], 해음원지[14], 강원도 굴산사지[5], 법천사지[1], 충청도 개태사지[4], 경상도 불국사지[7], 황룡사지[1], 전라도 미륵사지[50]에서 출토되었다.



Fig. 16.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송·금대 정요 백자 현황>Current Status of Ding White Ware from the Song and Jin Dynasties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dited by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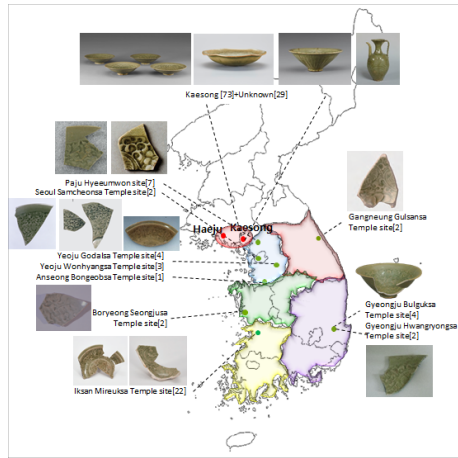


Fig. 17.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북송대 요주요 청자 현황>Current Status of Northern Song Yaozhou Celadon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dited by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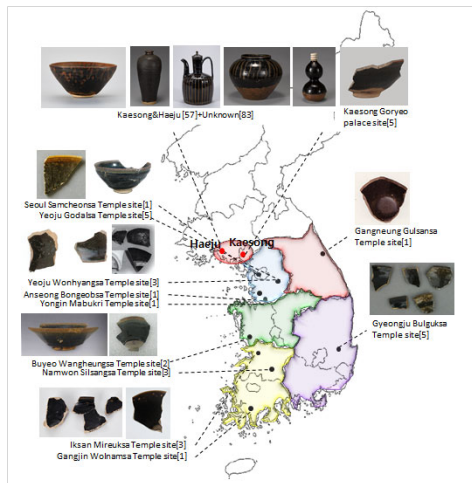


Fig. 18. <한반도 이남 사지 출토 송·금·원대 흑유자 현황>Current Status of Black-glazed Wares from the Song, Jin, and Yuan Dynasties Excavated from Temple Sit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dited by the author)

형 화형접시와 완류, 흑유자기는 완류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figs. 16, 17, 18).

많은 수량의 중국 도자가 출토된 미륵사지도 경덕진요 청백자편 112여 점, 정요 백자편 62점, 형요[또는 정요] 백자완편 56점, 요주요 청자편 23점, 월주요 청자편 35점, 흑유자기편 3점으로 품종 구성이 다른 사지와 동일하다.⁴² 기종을 살펴보면, 경덕진요 청백자는 완편 8점, 발편 16점, 절요접시편 50점, 10판에서 12판의 화형접시편 24점, 압출로 찍은 화형접시편 2점이다. 정요는 완편 9점, 발편 5점, 잔편 5점, 접시편 25점으로 확

42 권소현, 앞의 글, pp. 66-71. 이 글에 의하면 미륵사지 출토 중국 도자는 총 639점이지만, 이 중 323점만을 대상으로 산지를 분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인된다. 미륵사지와 같이 대량의 중국도자가 출토된 사지에서도 제한된 품종의 완, 발, 접시만 확인되는 점을 볼 때, 한반도 이남 지역은 개성, 해주와 달리 특정 품종의 몇몇 기종만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품종과 기종으로 볼 때, 사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모두 개성 부근에서 적지 않은 수량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개성으로 유입된 중국 도자 중에 일부 기종만 선별적으로 한반도 이남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서 발굴 조사된 법화사지, 수정사지, 원당사지 등 세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광동성·북건성 일대 조질 백자가 출토되었다(table 5). 127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축된 제주 향파두리 내성(內城) 유적에서도 용천요 청자 42점, 경덕진요 청백자 18점이 출토되었다.⁴³ 제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는 남송 13세기에서 원대 초의 용천요 청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성 부근에서 확인된 소량을 제외하고 거의 출토되지 않는 한반도 내륙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⁴⁴ 육지와 달리 제주도에서 용천요 청자가 출토되는 배경에는 송과 일본 간의 무역로 상에 위치한 제주도의 지리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제주도 서쪽 해안의 신창리 해역에서 중국도자 1,714점이 출수되었고, 그 중에 97%가 용천요 청자였다. 제주도는 남송에서 원대까지 중국 영파에서 출발한 상선이 일본 하카타로 가는 중에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았다.⁴⁵ 유적이나 해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품종은 무역선의 출항지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제주 지역과 한반도 내륙으로 유입된 중국 도자의 출항지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고려의 중심 도시였던 개성이나 해주 일대에서는 중국 북방 및 남방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가 함께 출토되는 반면, 한반도 이남에서는 경덕진요 청백자, 요주요 청자, 정요 백자, 흑유자 등 동일한 품종과 기종이 세트를 이루듯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찰에서 특정 품종과 기종만을 선별적으로 주문하였거나, 개성으로 유입된 중국도자 중 일부만이 남부 지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개성, 해주와 한반도 이남에서 거의 출토

43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 II』 (2019), pp. 146, 171, 172, 179, 193, 201, 206, 218, 225, 229, 236, 243, 250, 263, 280, 283, 290, 302;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 III』 (2020), pp. 109, 114, 154, 159, 307, 316, 317, 325, 329, 335, 346, 348;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pp. 119-123.

44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용천요 청자는 9점이 확인되며, 이 중에 4점이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유물 번호가 9점 모두 덕수로 시작하여서 이왕가박물관이 20세기 전반에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모리 다쓰야, 「제주 新昌里 해저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검토: 일본 출토 중국 도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編, 『東아시아 海上 貿易路에서 濟州島の 位相에 대한 實證的 研究』 제주학연구 34 (2016), pp. 185-186.

되지 않는 다량의 용천요 청자와 함께 경덕진요 청백자가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중국 도자의 산지·기종·품종별 수량이 지역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당시 중국 도자가 출항지를 추정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된다.

IV. 중국 도자의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고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품종과 산지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고려의 대중국 교류는 시기별로 사대 관계를 맺은 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중심으로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연구되어 왔다. 고려와 중국과의 교역은 주로 천주(泉州) 등 남방 출신 송상(宋商)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항로는 주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⁴⁶ 고려의 대 중국 항로는 대체로 10세기에서 11세기 중엽까지 산동성 등주(登州)나 밀주(密州)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한 뒤 웅진(甌津)에 도착하는 북로(北路)를 이용하며, 1073년 이후에는 명주(明州, 현 寧波)에서 출발하여 흑산도를 거쳐 벽란도로 입항하는 남로(南路), 즉 동중국해 사단항로(斜斷航路)를 이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⁷ 또한 문헌 기록과 한반도 근해에서 출수된 송·원대 도자가 주로 경덕진요, 용천요, 복건·광둥 지역 등에서 생산된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도자들이 송·원대 중국 동남해안의 주요 항구였던 명주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하카타(博多)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⁴⁸

그렇다면 문헌 기록과 한반도 근해 출수 도자에 근거한 주장처럼,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도 명주항을 출발하여 한반도 서남해안을 경유한 뒤 예성항으로 입항했을까? 실제 한반도 서남부 근해에서 인양된 중국 도자는 개성·해주를 비롯한 한반도 이남 지역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와 품종, 기종, 수량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국 항주나 영파 출토 고려청자를 근거로 남로를 이용한 점을 강조하지만 최근 북경의 금대 중도(中都)

46 李鎭漢, 「宋商往來의 유형과 〈宋商往來表〉」, 경인문화사 編,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2011), pp. 248-276. 〈송상왕래표〉에는 지금까지의 관련 문헌 기록을 집대성하여 960년부터 1301년까지 宋商이 고려에 왕래한 유형, 시기, 횡수, 성격 등을 자세하게 분석·정리하였다.

47 문경호, 「고려-송의 해상 교역로와 청자 무역」, 『박물관과 연구』 3 (2025), pp. 16-27.

48 송동립, 「한반도 근해 출수 宋元陶器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문화유산』 29 (2016), pp. 56-61.

유적에서 다량의 12세기에서 14세기경의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⁴⁹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고려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를 추정하는데 중국 동북 및 동남 연해 지역의 항구 유적과 침몰선에서 확인된 도자의 산지와 품종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개성, 해주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제작 시기는 10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걸쳐 분포하지만, 대체로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경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는 중국의 북송대 중·말기에서 금, 남송, 원대에 해당하며, 당시 중국의 주요 항구는 하북성, 산둥성 일대의 동북 해안권과 절강성·북건성·광둥성 일대의 동남 해안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중국 동북 해안권에 위치한 항구 유적은 하북성 황화(黃驊) 해풍진(海豐鎭), 간리(壘利) 해북(海北), 산둥성 봉래수성(蓬萊水城), 청도(靑島) 교주(膠州) 판교진(板橋鎭), 일조시(日照市) 남산구(嵐山區) 신화촌(新華村) 등이 있다.⁵⁰ 동남 해안권에서 발견된 항구 유적이나 침몰선은 절강성 태창(太倉) 번촌경(樊村涇), 상해 청룡진(靑龍鎭), 북건성 천주 후저항(后渚港), 장주(漳州) 반양초(半洋礁), 성배서(聖杯嶼), 광둥성 남해(南海) 1호선 등이다.

중국 동북해안과 동남해안에 위치한 항구 유적이나 침몰선에서 발견되는 송, 금, 원대 도자는 산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동북해안에 위치한 황화 해풍진은 중국 북방의 정요, 혼원요, 자주요계, 균요, 요주요와 남방의 용천요, 경덕진요의 도자들이 발견되었다.⁵¹ 간리 해북, 청도 교주 판교진 항구 유적은 자주요계, 균요계, 정요, 치박요, 요주요 등의 북방 도자와 건요, 길주요, 경덕진요, 용천요 등의 남방 도자가 함께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⁵² 동남해안권의 항구 유적이나 침몰선에서는 절강성, 강서성, 강소성, 북건성, 광둥성 등 양자강 이남 지역에 위치한 가마에서 제작된 도자만 출토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⁵³

황화 해풍진, 간리 해북, 판교진 항구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는 북송 중말기에서 금대이거나

49 李永强·王繼紅, 「金中都 東開陽坊유적 출토 고려청자 변화」, 『해양문화재』 17 (2022), pp. 400-415; 李永强, 「金中都 富義坊유적 출토 고려청자와 관련 문제」, 『해양유산연구』 20 (2024), pp. 346-353.

50 石玉兵, 「宋元时期北方海港及相關考古遺存的初步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pp. 11-24.

51 黃驊市博物館 外 編, 『2000年 黃驊市海豐鎭遺址發掘報告』(北京: 文物出版社, 2015), pp. 291-292; 黃驊市博物館 外 編著, 『華瓷吉彩: 黃驊市海豐鎭遺址出土』(北京: 科學出版社, 2016).

52 靑島市文物保護考古研究所 編著, 『膠州板橋鎭遺址』(北京: 科學出版社, 2014), pp. 18-149.

53 劉未, 「中國東南沿海及東南亞地區沉船所見宋元貿易陶瓷」, 『考古與文物』 6 (2016), pp. 71-72. 중국 동남연안에 서 발견되는 침몰선에 적재된 도자의 산지는 북송 만기(1060~1100)부터 원대 중만기(1310~1360)까지 경덕진요, 덕화요, 용천요, 광둥·북건 지역으로 보고되었다.

동시기 남송대의 것이고, 일부 원대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금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원대에 쇠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금대 정요나 자주요계 도자가 개성·해주 일대에서 확인된 도자와 유사하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다.⁵⁴ 황화 해풍진 및 청도 판교진 유적의 출토품을 개성, 해주 출토품과 면밀하게 비교하면, 자주요계 요지의 백유·백지흑화·홍록채·흑유, 음각 및 압출기법의 정요 백자류, 요주요 청자, 균요계 자기,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길주요 흑유자 등 송·금·원대에 걸친 자기에서 유사한 품종 및 기종 구성이 확인된다 (figs. 19, 20). 결국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해주 일대에서 송·금·원대의 북방 및 남방 요지의 생산품이 함께 출토된다는 사실은 해당 도자의 출항지와 해상 교역로를 추정하는데 중요가 단서가 된다. 따라서 개성·해주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출항지는 산동성이나 하북성에 위치한 항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산동성 봉래수성 유적에서 고려말의 선박이 발견된 점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⁵⁵

중국 동북 해안권의 항구에서 남방 요지의 자기들이 다량 출토되는 것은 연해 항구로서, 대외 무역과 남방 지역 항구들과 연결되는 중계항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판교진이 위치한 밀주(密州)에 1088년에 시박사(市舶使)가 설치되었고, 금대에는 남송과 교역할 수 있는 각장(榷場)이 설치되어서 남·북방 지역의 다양한 도자가 유입되었다.⁵⁶ 산동성 일조시 신화촌(新華村) 항구 유적에서도 북송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경덕진 호전요지(湖田窯址)에서 제작된 10판, 12판의 청백자 화형접시가 출토되었다.⁵⁷ 이러한 유형의 화형접시는 개성 부근에서 발견된 20여 점을 비롯하여 한반도 이남의 전국 사지에서도 출토되는 대표적인 기종이다 (fig. 14).⁵⁸ 경덕진요 청백자를 비롯한 남방 지역의 도자는 북송대부터 연안 항로를 따라서 산동반도의 주요 항구로 운송되었고, 다시 해안을 따라서 하북성 해풍진이나 해북 항구로 운송되었다.⁵⁹ 다양한 남방 지역 도자가 동북해안의 항구에서 다량 출토되는 반면에 동남해안의

54 吳敬外, 「金代瓷器海運港口的考古學觀察」, 『考古』 10 (2018), p. 117.

55 龔昌奇 외 2인, 「蓬萊三號古船의測繪及復原研究」, 『蓬萊古船』 (北京: 文物出版社, 2006), pp. 116-119; 김성범, 「中國蓬萊水城 출토 高麗船」,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pp. 250-253.

56 吳敬外, 앞의 글, pp. 115-116.

57 劉延常 외, 「中國山東考古發現的南方瓷器(以11-14世紀爲中心)」, 岩手大學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 編, 『國際シンポジウム 11~14世紀における中國陶磁の生産と流通: 日本・中國の事例を中心として』 (盛岡: 2022), pp. 125-126, pl. 4, 5. 이 논문에서는 송·원대 산동 지역의 항구 유적 및 침몰선에서 출토된 경덕진요, 용천요, 길주요 등 남방 자기를 근거로, 중국 남북 지역을 잇는 연안 항로가 도자의 유통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논하였다.

58 김윤정, 앞의 글, pp. 100-101.

59 陳杰, 「從出土瓷器看唐宋时期山東半島與南方地區的海上交流」, 『福建文博』 4 (2012), pp. 16-18.



Fig. 19. <황화 해풍진 유적(좌)과 고려 개성·해주(우) 출토 중국 도자 산지 비교>Comparison of Provenance for Chinese Ceramics Excavated from the Haifengzhen Site in Huanghua and the Koryŏ Sites in Kaesong and Haeju (Left: Huanghuashi bowuguan, 2000 nian Huanghuashi Haifengzhen yizhi fajue baogao, Right: <https://www.emuseum.go.kr>, Edited by the author)



Fig. 20. <청도 판교진 유적(좌)과 고려 개성·해주(우) 출토 도자 산지 비교>Comparison of Provenance for Ceramics Excavated from the Banqiaozhen Site in Qingdao and the Koryŏ Sites in Kaesong and Haeju (Left: Qingdaoshi wenwu baohu kaogu yanjiusuo, Jiaozhou Banqiaozhen yizhi, Right: <https://www.emuseum.go.kr>, Edited by the author)

항구 유적에서 자주요계, 균요계, 혼원요 등의 북방 도자가 출토된 예는 매우 드물다. 다만 금대에는 정요 백자가 해풍진과 해북 항구로 운송된 후에 다시 산둥반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송 지역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둥성의 판교진이 위치한 밀주는 송대부터 광둥, 복건, 회절로(淮浙路)의 상인과 경동(京東, 현 산둥성 일대), 하북삼로(河北三路, 현 하북성 동부 및 산둥성 북부)의 상인이 만나 교역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천주를 비롯한 광둥·복건에서 온 해상들이 밀주에서 수개

월 동안 체재하면서 물건을 팔았다.⁶⁰ 송, 금, 원대에 연안 교역 양상을 배경으로, 하북성과 산둥성 일대 항구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와 개성, 해주 일대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광둥·복건·절강 등 남방 지역의 해상들이 산둥반도나 하북성의 항구를 출발한 후에 황해를 횡단하여 예성항에 입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복로를 이용하여 예성항에 입항할 때 거쳐야 하는 해주만 입구에 위치한 용매도에서 송·원대 도자가 다량 출토된 사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fig. 21).

남송 말기에서 원대 용천요 청자는 개성 부근에서 매우 소량 확인되고 제주 해역과 제주 내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원대 용천요 청자는 구강(甌江)을 따라 온주(溫州)까지 운반된 뒤 태창(太倉)에서 환적하여 해선(海船)으로 북상하는 경로를 취하였다. 태창에서 연해 항로를 따라서 산둥성 교주 판교진, 등주(현 봉래), 직고(直沽, 현 천진) 일대까지 운송되었다.⁶¹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는 용천요 청자는 기종 구성이 산둥성 판교진 항구 유적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소량이라는 점에서 중국 남·북방 요지의 상품이 모두 모이는 중국 동북해안의 항구에서 출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용천요 청자가 다량 출토되는 제주의 경우, 태창을 비롯한 영파, 상해, 복주 등 용천요 청자의 주요 집산지인 동남연해 항구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fig. 21).

한반도 이남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 남부의 사지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품종과 기종은 개성·해주 일대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반도 이남의 사찰에서 모두 동일한 품종과 기종의 중국 도자가 세트를 이루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개성이나 해주로 유입된 중국 도자 중에 사찰의 선호도가 높았던 백자류, 청자류, 흑유자 등의 품종과 완, 접시 등의 특정 기종만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고려시대 사원의 경제·사회적 기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려시대 사원은 전국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여 상인과 여행자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중심지로서 불교 행사에 수천 명의 인원이 장기간 운집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거래와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⁶²

60 金榮濟, 「麗宋交易的 航路와 船舶」, 『歷史學報』 204 (2009), pp. 247-248; 『續資治通鑑長編』 卷 341. “元豐六年十一月, 密州鉅野縣 轄下板橋鎮隸高密縣, 正居大海之濱, 其人煙市井交易繁夥, 商賈所聚, 東則二廣·福建·淮·浙之人, 西則京東·河北三路之觴, 絡繹往來, 然海商至者, 類不過數月即謀還歸, 而其物貨間有未售, 則富家大姓往往乘其急而以賤價買之.”

61 吳聞達·高憲平, 「試析元明時期龍泉青瓷北運主流路線的轉移」, 『故宮博物院院刊』 5 (2024), pp. 103-107.

62 김병인, 「高麗時代 寺院의 交通機能」, 『전남사학』 13 (1999), pp. 4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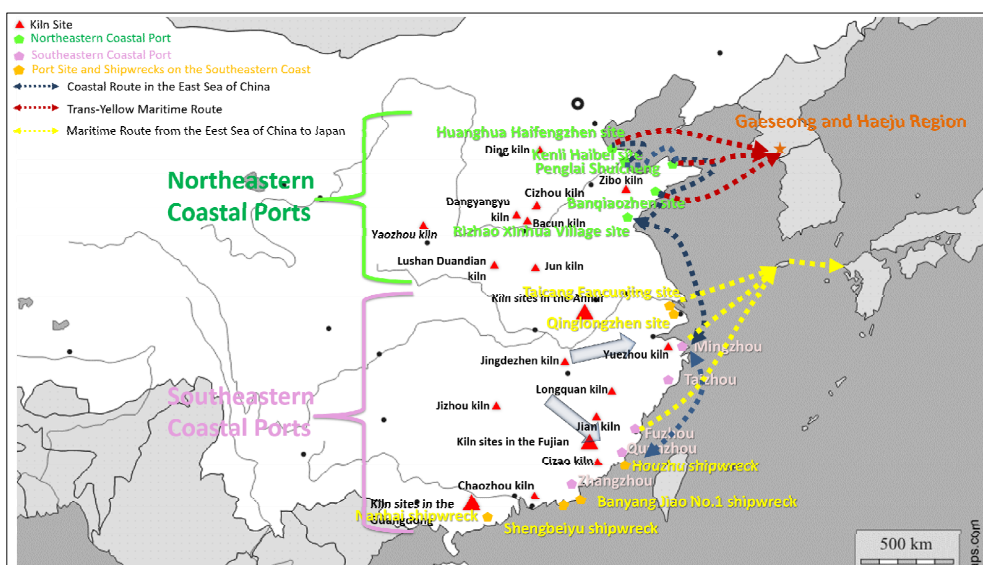


Fig. 21. <고려에 수입된 중국도자의 출항지와 교역로> Ports of Departure and Maritime Trade Routes for Chinese Ceramics Imported into Koryŏ (Edited by the author)

V. 맺음말

본 연구는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약 2,000여 점의 중국 도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지, 품종, 기종 및 시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유통 양상과 그에 따른 해상 교역로를 실물 자료에 기반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과 한반도 내 유적 출토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 중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역별로 뚜렷한 출토 양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행정 중심지였던 개성과 군사적 요충지였던 해주 일대에서는 송·금·원대 중국 북방의 자주요계, 정요, 균요 등과 남방의 경덕진요, 자조요, 용천요 등 중국 남·북방의 다양한 도자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반면 한반도 이남의 사지에서는 경덕진요 청백자, 정요 백자, 요주요 청자, 흑유완 등 특정 품종과 기종만이 세트르 출토되는 선별적 소비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제주 지역은 내륙과 달리 용천요 청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독자적인 유통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자의 산지 분석을 통해 고려의 대중국 해상 교역로와 출항지를 재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문헌기록에 기반하여, 11세기 이후에는 영파를 출항하여 남로를 이용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중국 도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세기 이후에도 산둥성이나 하북성 항구를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하는 북로(北路)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성·해주 출토품이 중국 동북 해안의 항구 유적인 해풍진, 판교진 등지의 출토품과 유사하게 중국 북방 및 남방 요지의 산품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북로를 이용할 때 주요 거점지인 해주 일대와 용매도에서 다량의 송·원대 도자가 출토된 점도 중요한 근거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지 출토 중국 도자를 분석한 결과, 해주나 개성으로 유입된 중국 도자 중에 일부 품종과 기종이 선별적으로 한반도 이남의 사찰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의 도자 문화는 고려청자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다양한 요지에서 생산된 도자를 수용하고 향유한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중국 도자의 유입과 유통은 정치·경제적 중심지인 개성·해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역망 속에서 고려가 차지한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keywords)_고려(Koryŏ), 중국 도자(Chinese Ceramics), 교역로(Trade Routes), 지역별 유통(Regional Circulation), 황해횡단항로(Trans-Yellow Sea Maritime Route), 자조요(Cizaoyao)

■ 투고일 2026년 04월 13일 | 심사개시일 2026년 04월 21일 | 심사완료일 2026년 04월 26일 ■

참고문헌

1. 사료

『京城日報』

『大韓每日申報』

『續資治通鑑長編』

2. 한국어 문헌

강원문화재연구소, 『원주 범천사』, 2009.

경기도박물관, 『봉업사』, 2002.

경기문화재연구원, 『高達寺址Ⅱ』, 2007.

_____, 『여주 원향사』, 2013.

고미경, 「미륵사지 출토 중국 백자 및 청백자의 현황과 특징」, 국립익산박물관 편, 『미륵사지 중국도자』 학술총서 <미륵사지 재발견> 1, 2025, pp. 94-10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 九黃洞 皇龍寺址展示館 建立敷地内 遺蹟 : 九黃洞 苑池 遺蹟』, 2008.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왕흥사지Ⅶ』, 20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자암 발굴조사보고서』, 1994.

_____, 『서산보원사지Ⅱ』, 2012.

_____, 『실상사Ⅱ』, 2006.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도자-중국도자』, 2023.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中國陶磁』, 예경, 2007.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강릉 굴산사지 발굴조사 보고서Ⅰ』, 2015.

권소현, 「미륵사지 출토 중국도자의 현황과 특징」, 국립익산박물관 편, 『미륵사지 중국도자』 학술총서 <미륵사지 재발견> 1, 2025, pp. 38-75.

김경인, 「고려시대 유입 송대 남방백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_____, 「고려유적 출토 송대 남방 백자의 지역별 특징과 수용 양상」, 『미술사학』 326, 2025, pp. 97-128.

김병인, 「高麗時代 寺院의 交通機能」, 『전남사학』 13, 1999, pp. 31-57.

김성범, 「中國 蓬萊水城 출토 高麗船」,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pp. 233-284.

金榮濟, 「麗宋交易의 航路와 船舶」, 『歷史學報』 204, 2009, pp. 237-267.

김윤정, 「고려시대 유적 출토 宋代 靑白瓷의 현황과 특징」, 『야외고고학』 16, 2013, pp. 91-119.

_____, 「한반도 유입 중국 磁州窯系 瓷器의 양상과 그 의미」, 『야외고고학』 39, 2020, pp. 41-7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과주시, 『과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본문)』, 2003.

리용칭(李永強), 「金 中都 富義坊유적 출토 고려청자와 관련 문제」, 『해양유산연구』 20, 2024, pp. 346-353.

- 리용칭·왕지홍(李永強·王繼紅), 「金中都 東開陽坊유적 출토 고려청자 변화」, 『해양문화재』 17, 2022, pp. 400-415.
- 李鎮漢,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경인문화사, 2011.
- 모리 다쓰야(森達也), 「제주 新昌里 해저유적 출토 중국 도자의 검토: 일본 출토 중국 도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編, 『東아시아 海上 貿易路에서 濟州島의 位相에 대한 實證的 研究』, 제주학연구 34, 2016, pp. 165-177.
- _____, 「원대의 도자기 유통: 도자사에서 몽골의 영향」, 『아시아 陶磁文化 연구』 제3호, 2020, pp. 101-148.
- 목포대박물관·나주시, 『나주 송월동유적 II: 통일신라~고려시대』, 2010.
- 문경호, 「고려-송의 해상 교역로와 청자 무역」, 『박물관과 연구』 3, 2025, pp. 10-37.
- 박방룡, 「尙州 書谷洞 出土 一括遺物」, 『미술자료』 49, 국립중앙박물관, 1992.
-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 2011.
- 송동립, 「한반도 근해 출수 송원도자(宋元陶瓷)의 양상과 최종 수요처」, 『문물연구』 29, 2016, pp. 45-66.
- 신준, 「미륵사지 출토 중국 청자 연구」, 국립익산박물관 編, 『미륵사지 중국도자』 학술총서 <미륵사지 재발견> 1, 2025, pp. 76-93.
- 이명옥, 「고려 유적 출토 송대 흑유완의 양식적 특징과 유입 양상」, 『호남고고학보』 79, 2025, pp. 154-179.
- 이준광, 「고려시대 사찰의 자기 소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 이종민, 「高麗 中期 輸入 中國白磁의 系統과 性格」, 『미술사연구』 25, 2011, pp. 137-160.
- _____, 「高麗時代 中國陶磁의 수입양상과 배경」,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pp. 164-174.
- 李鎮漢, 「宋商往來의 유형과 <宋商往來表>」,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경인문화사, 2011.
- 임진아,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임진아, 「고려유적 출토 송대 자기 연구」, 『사림』 22, 2004, pp. 179-210.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 II』, 2019.
- _____, 『제주 향파두리성 내성 III』, 2020.
- 제주대학교박물관, 『법화사지』, 1992.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 2000.
- 충남대학교 박물관, 『성주사』, 1998.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논산 개태사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8.
-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마북리사지』, 2003.

3. 동양어 문헌

- 龔昌奇 외 2인, 「蓬萊三號古船의 測繪及復原研究」, 文物出版社 編, 『蓬萊古船』, 北京, 2006, pp. 114-119.
- 郭學電, 「宋代潮州筆架山窯研究三題-興衰史, 外銷開城的產品及“麻姑進酒壺”之正名」, 中國華僑出版社 編, 『中國潮州窯』, 北京, 2015, pp. 374-385.
- 金英美, 「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高麗遺址出土中國瓷器」, 『文物』 4, 2010. 4, pp. 77-95.
- 劉未, 「中國東南南海及東南亞地區沉船所見宋元貿易陶瓷」, 『考古與文物』 6, 2016. 12, pp. 65-75.

- 劉延常 外,「中國山東考古發現的南方瓷器(以11-14世紀爲中心)」,岩手大學平泉文化研究センター 編,『國際シンポジウム 11~14世紀における中國陶磁の生産と流通-日本・中國の事例を中心として-』,2022,盛岡, pp. 119-145.
- 李王家博物館,「高麗窯の前後ご陶工の關係」,李王職 發行,『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陶磁器之部』,1932.
- 福岡市教育委員会,『香椎B遺跡-福岡市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第621集』,2000.
- 福建省文物局 主編,『磁窰窯址-福建晉江磁窰窯址考古調查發掘報告』,北京:科學出版社,2011.
- 三宅長策,「そのころの思ひ出-高麗古墳發掘時代」,『陶磁』第6卷 6號,東京:陶磁研究所,1934, pp. 70-77.
- 森本朝子,「日本博多遺址及周圍地區出土的磁窰窯系陶磁器」,科學出版社 編,『磁窰窯址-福建晉江磁窰窯址考古調查發掘報告』,北京,2011, pp. 409-424.
- 石玉兵,「宋元时期北方海港及相关考古遺存的初步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2017.
- 陝西省考古研究所,『宋代耀州窯址』,北京:文物出版社,1998.
- 小山富士夫,「高麗陶磁序說」,河出書房 編,『世界陶磁全集』13卷 朝鮮上代・高麗篇,東京,1955, pp. 220-226.
- 小山富士夫,「定窯雜考」,『陶磁』第7卷 第3號,1935, pp. 8-21.
- 吳敬 外,「金代瓷器海運港口的考古學觀察」,『考古』10,2018, pp. 110-120.
- 吳聞達・高憲平,「試析元明时期龍泉青瓷北運主流路線的轉移」,『故宮博物院院刊』5,2024, pp. 102-113.
- 奥平武彦,「朝鮮出土の支那陶磁器雜見」,『陶磁』第9卷 第2號,1937, pp. 1-11.
- 長谷部樂爾 監修,『日本出土の中國陶磁』,東京:平凡社,1995.
- 田中克子,「日本福岡市博多遺址群出土的潮州窯產品與外銷」,中國華僑出版社 編,『中國潮州窯』,北京,2015, pp. 368-373.
- 陳杰,「從出土瓷器看唐宋时期山東半島與南方地區的海上交流」,『福建文博』4,2012, pp. 15-19.
- 青島市文物保護考古研究所 編著,『膠州板橋鎮遺址』,北京:科學出版社,2014.
- 崔淳雨,「韓國出土の宋代陶磁」,小學館 編,『世界陶磁全集』第十二卷 宋,東京,1977, pp. 292-294.
- 黃驊市博物館 外 編,『2000年 黃驊市海豐鎮遺址發掘報告』,北京:文物出版社,2015.
- 黃驊市博物館 外 編著,『華瓷吉彩:黃驊市海豐鎮遺址出土』,北京:科學出版社,2016.

4. 서양어 문헌

- Hobson, Robert Lockhart. *Chinese Pottery and Porcelain*.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15.
- Platt, John. "Korean Potte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36, no. 205 (1920): 202-203.
- Rackham, Bernard.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K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 Reitz, S. C. Bosch. "Recent Accession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11, no. 2 (1916): 46-49.
- Warner, Lorraine D'O.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16, no. 61 (1918): 17-20.
- _____.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6,

no. 3 (1919): 46-58.

5. 데이터베이스

国立文化財機構所蔵品統合検索システム, <https://colbase.nich.go.jp/>

福岡県の文化財 <https://www.fukuoka-bunkazai.jp/>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Kyŏngsŏng ilbo

Taehan maeil sinbo

Xu Zizhi Tongjian Changbian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eju kogohak yŏn'guso. *Cheju Hangp'aduri-sŏng naesŏng II*. Cheju: Cheju kogohak yŏn'guso, 2019.

_____. *Cheju Hangp'aduri-sŏng naesŏng III*. Cheju: Cheju kogohak yŏn'guso, 2020.

Cheju munhwa yesul chaedan munhwajae yŏn'guso. *Cheju-si munhwa yujŏk palgul chosa pogosŏ*.

Cheju: Cheju munhwa yesul chaedan munhwajae yŏn'guso, 2007.

Cheju taehakkyo pangmulgwan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Pŏp'wasaji*. Cheju: Cheju taehakkyo pangmulgwan, 1992.

Cheju-si (Jeju City) and Cheju taehakkyo pangmulgwan (J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Sujŏngsaji*. Cheju: Cheju taehakkyo pangmulgwan, 2000.

Ch'ungch'ŏng-namdo yŏksa munhwa yŏn'guwŏn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Nonsan Kaet'aesaji 5-ch'a palgul chosa pogosŏ*. Kongju: Ch'ungch'ŏng-namdo yŏksa munhwa yŏn'guwŏn, 2018.

Ch'ungnam taehakkyo pangmulgw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useum). *Sŏngjusa*. Taejŏn: Ch'ungnam taehakkyo pangmulgwan, 1998.

Hansin taehakkyo pangmulgwan (Hanshin University Museum). *Yongin Mabukrisaji*. Osan: Hansin taehakkyo pangmulgwan, 2003.

I, Chin-han (Lee, Jin-han). "Song Sang Wang-nae ŭi yuhyŏng kwa Song Sang Wang-nae P'yo." *Koryŏ sidae Song-sang wangnae yŏn'gu*. Sŏul: Kyŏngin munhwasa, 2011.

I, Chong-min (Lee, Jong-min). "Koryŏ chunggi suip Chungguk paekcha ŭi kyet'ong kwa sŏngkyŏk." *Misulsa yŏn'gu* 25 (2011): 137-160.

_____. "Koryŏ sidae Chungguk tojagi ŭi suyip yangsanggwa paegyŏng." *Tongwŏn Haksul Nonmunjip* 14 (2013): 164-174.

I, Chun-gwang (Lee, Jun-kwang). "Koryŏ sidae sach'al ŭi chagi chasobi yŏn'gu."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25.

I, Myŏng-ok (Lee, Myung-ok). "Koryŏ yujŏk ch'ult'o Songdae hŭgyuwan ŭi yangsikchŏk t'ŭkching kwa yuip yangsang." *Honam kogohakpo* 79 (2025): 154-179.

Im, Chin-a (Im, Jin-a). "Koryŏ Yujŏk Ch'ult'o Song taeyo Chagi Yŏn'gu." Master's thesis, Sŏnggyun'gwan

- University, 2003.
- _____. “Koryŏ Yujŏk Ch’ult’o Song taeyo Chagi Yŏn’gu,” *Sarim* 22 (2004): 179-210.
- Kangwon munhwajae yŏn’guso. *Wŏnju Pŏpch’ŏnsa*. Ch’unch’ŏn: Kangwon munhwajae yŏn’guso, 2009.
- Kim Pyŏng-in (Kim, Byeong-in). “Koryŏ sidae sawŏn-ŭi kyot’ong kinŭng,” *Chŏnnam sahak* 13 (1999): 31-57.
- Kim, Kyŏngin (Kim, Gyeong-in). “Koryŏ sidae yuip Songdae nambang paekcha yŏn’gu,”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22.
- _____. “Koryŏ yujŏk ch’ult’o Songdae nambang paekcha ŭi chiyŏkpyŏl t’ŭkching kwa suyong yangsang,” *Misulsahak* 326 (2025): 97-128.
- Kim, Sŏngbŏm (Kim, Sung-beom). “Chungguk Pongnaesu-sŏng ch’ult’o Koryŏsŏn,” *Han’guk chungsesa yŏn’gu* 27 (2009): 233-284.
- Kim, Yŏng-che (Kim, Young-jae). “Yŏ-Song kyoyŏk ŭi hangno wa sŏnpak,” *Yŏksahakpo* 204 (2009): 237-267.
- Kim, Yun-chŏng (Kim, Yun-jeong). “Hanpando yuip Chungguk Chaju-yo-gye chagi ŭi yangsang kwa kŭ ŭimi,” *Ya-oe kogohak* 39 (2020): 41-71.
- _____. “Koryŏ sidae yujŏk ch’ult’o Songdae ch’ŏngbaekcha ŭi hyŏnhwang kwa t’ŭkching,” *Ya-oe kogohak* 16 (2013): 91-119.
- Ko, Mikyŏng (Koh, Mi-kyung). “Mirŭksaji ch’ult’o Chungguk paekcha mit ch’ŏngbaekcha ŭi hyŏnhwang kwa t’ŭkching,” In *Mirŭksaji Chungguk toja*, edited by Sohyŏn Kwŏn, Hŭi-jin Son, 94-109.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5.
- Kungnip Cheju pangmulgwan (Jeju National Museum). *Cheju ch’ult’o Koryŏ sidae tojagi*. Cheju: Kungnip Cheju pangmulgwan, 2013.
- Kungnip chungang pangmulgwan misulbu (National Museum of Korea). *Chungguk toja*. Koyang: Yekyŏng, 2007.
- Kungnip Chungwŏn munhwajae yŏn’guso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angnŭng Kulsansa chi palgul chosa pogosŏ I*. Ch’ungju: Kungnip Chungwŏn munhwajae yŏn’guso, 2015.
- Kungnip Iksan pangmulgwan (Iksan National Museum). *Mirŭksaji toja: Chungguk toja*.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3.
- Kungnip Kyŏngju munhwajae yŏn’guso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yŏngju Kuhwang-dong Hwangnyongsa chi chŏnsigwan kŏllip puchi nae yujŏk: Kuhwang-dong Wŏnji yujŏk*. Kyŏngju: Kungnip Kyŏngju munhwajae yŏn’guso, 2008.
- Kungnip Puyŏ munhwajae yŏn’guso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achaam palgul chosa pogosŏ*. Puyŏ: Kungnip Puyŏ munhwajae yŏn’guso, 1994.
- _____. *Silsangsa II*. Puyŏ: Kungnip Puyŏ munhwajae yŏn’guso, 2006.
- _____. *Sŏsan Powŏnsa chi II*. Puyŏ: Kungnip Puyŏ munhwajae yŏn’guso, 2012.

- Kungnip Puyŏ munhwayusan yŏn'guso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anghŭngsa chi VII*. Puyŏ: Kungnip Puyŏ munhwayusan yŏn'guso, 2017.
- Kwŏn, Sohyŏn (Kwon, So-hyun). "Mirŭksaji ch'ult'o Chungguk toja ūi hyŏnhwang kwa t'ŭkching." In *Mirŭksaji Chungguk toja*, edited by Sohyŏn Kwŏn, Hŭi-jin Son, 38-75.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5.
- Kyŏnggi munhwajae yŏn'guwŏn. *Kodalsa chi II*. Suwŏn: Kyŏnggi munhwajae yŏn'guwŏn, 2007.
- _____. *Yŏju Wŏnhyangsa*. Suwŏn: Kyŏnggi munhwajae yŏn'guwŏn, 2013.
- Kyŏnggido pangmulgwan (Gyeonggi Provincial Museum). *Pongŏpsa*. Yongin: Kyŏnggido pangmulgwan, 2002.
- Li Yongqiang. "Kŭm Chungdo Puyibang yujŏk ch'ult'o Koryŏ ch'ŏngja wa kwanryŏn munjye." *Haeyang yusan yŏngu* 20 (2024): 346-353.
- Li Yongqiang·Wang Jihong. "Kŭm Chungdo Tonggaeyangbang yujŏk ch'ult'o Koryŏ ch'ŏngja pyŏnhwa." *Haeyang munhwajae* 17 (2022): 400-415;
- Mokp'o taehakkyo pangmulgwan (Mokpo National University Museum) and Naju-si (Naju City). *Naju Songwŏl-tong yujŏk II: T'ongil Silla-Koryŏ sidae*. Kwangju: Tosŏ Ch'ulpan Mudol, 2010.
- Mori, Tatsuya. "Cheju Sinch'ang-ri haejŏ yujŏk ch'ult'o Chungguk toja ūi kŏm't'o: Ilbon ch'ult'o Chungguk toja wa ūi pigyo rŭl t'onghayŏ." In *Tong-Asia haesang muyongno esŏ Chejudo ūi wisang e taehan silchŭngjŏk yŏn'gu*, 165-177. Cheju: Cheju Palchŏn yŏn'guwŏn Chejuhak yŏn'gu sent'ŏ (Center for Jeju Studies), 2016.
- _____. "Wŏndae ūi tojagi yut'ong: Tojasa esŏ Monggol ūi yŏnghyang." In *Asia toja munhwa yŏn'gu* 3, 101-148.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Gwangju National Museum), 2020.
- Mun, Kyŏngho (Mun, Gyung-ho). "Koryŏ-Song ūi haesang kyoyŏngno wa ch'ŏngja muyŏk." *Pangmulgwan kwa yŏn'gu* 3, (2025): 10-37.
- Pak, Pang-ryong (Park, Bang-ryong). "Sangju Sŏgok-tong ch'ult'o ilkwallyumul." *Misul charyo* 49 (1992): 105-124.
- Sin, Chun (Shin, Jun). "Mirŭksaji ch'ult'o Chungguk ch'ŏngja yŏn'gu." In *Mirŭksaji Chungguk toja*, edited by Sohyŏn Kwŏn, Hŭi-jin Son, 76-93. Iksan: Kungnip Iksan pangmulgwan, 2025.
- Song, Tong-rim (Song, Dong-rim). "Hanpando kŭnhae ch'ulso Song-Wŏn t'oja ūi yangsang kwa ch'oejong suyoch'ŏ." *Munmul yŏn'gu* 29, (2016): 45-66.
- Sŏul yŏksa pangmulgwan (Seoul Museum of History). *Puk'ansan Samch'ŏnsaji palgul chosa pogosŏ 1*. Sŏul: Sŏul yŏksa pangmulgwan, 2011.
- Tankuk taehakkyo maejang munhwajae yŏn'guso and P'aju-si (Paju City). *P'aju Hyeŭmwŏn chi palgul chosa pogosŏ: 1-ch'a-4-ch'a (ponmun)*. Yongin: Tankuk taehakkyo maejang munhwajae yŏn'guso, 2003.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Languages

- Chen, Jie. "Cong chutu ciqi kan Tang Song shiqi Shandong bandao yu nanfang diqu de haishang jiaoliu." *Fujian wenbo* 4 (2012): 15-19.
- Choe, Sunu. "Kankoku shutsudo no Sōdai tōji." In *Sekai tōji zenshū* 12, edited by Gakuji Hasebe, 292-294. Tokyo: Shōgakusan, 1977.
- Fujiansheng wenwuju (Fujian Provincial Bureau of Cultural Heritage),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Beijing: Kexue chubanshe, 2011.
- Fukuoka-shi Kyōiku Iinkai (Fukuoka City Board of Education), *Kashii B iseki: Fukuoka-shi maizō bunkazai hakkutsu chosa hōkokusho dai 621-shū*. Fukuoka: Fukuoka-shi Kyōiku Iinkai, 2000.
- Gong, Changqi, Wei, Cai, and Longfei, Xi. "Penglai sanhao guchuan de cehui ji fuyuan yanjiu." In *Penglai guchuan*, edited by Min, Cai, 114-119. Beijing: Wenwu chubanshe, 2006.
- Guo, Xuelei. "Songdai Chaozhou Bijia-shanyao yanjiu santi: Xingshuaishi, waixiao kaicheng de chanpin ji 'Magu jinjiuhu' zhi zhengming." In *Zhongguo Chaozhouyao*, edited by Bingyan, Li, 374-385. Beijing: Zhongguo Huaqiao chubanshe, 2015.
- Hasebe, Gakuji, ed. *Nihon shutsudo no Chūgoku tōji*. Tokyo: Heibonsha, 1995.
- Huanghuashi bowuguan, *2000 nian Huanghuashi Haifengzhen yizhi fajue baogao*. Beijing: Wenwu chubanshe, 2015.
- _____. *Huaci jicai: Huanghuashi Haifengzhen yizhi chutu*. Beijing: Kexue chubanshe, 2016.
- Iōka hakubutsukan, "Kōrai-yō no zengo to tōkō no kankei." In *Iōka hakubutsukan shozōhin shashinchō: Tōjiki no bu*, edited by Iōshoku, Keijō: Iōshoku, 1932.
- Jin, Yingmei. "Hanguo guoli zhongyang bowuguan zang Gaoli yizhi chutu Zhongguo ciqi." *Wenwu* 4 (2010): 77-95.
- Koyama, Fujio. "Kōrai tōji josesu." In *Sekai tōji zenshū* 13: Chōsen jōdai·Kōrai-hen, edited by Fujio Koyama, 220-226. Tokyo: Kawade Shobō, 1955.
- _____. "Teiyō zakkō." *Tōji* 7, no. 3. (1935): 8-21.
- Liu, Wei. "Zhongguo dongnan yanhai ji dongnanya diqu chenchuan suo jian Song Yuan maoyi taoci." *Kaogu yu wenwu* 6 (2016): 65-75.
- Liu, Yanchang, Zehua Wei, Jie Meng, Xiaobo Yang, and Liguang Wu. "Chūgoku Santō kōko hakken no nantō jiki: 11-14 seiki o chūshin ni." In *Kokusai shinpojiumu: 11-14 seiki ni okeru Chūgoku tōji no seisan to ryūtsū: Nihon, Chūgoku no jirei o chūshin to shite*, edited by Iwate Daigaku Hiraizumi Bunka Kenkyū Sentā, 119-145. Morioka: Iwate Daigaku Hiraizumi Bunka Kenkyū Sentā, 2022.
- Miyake, Chōsaku. "Sono koro no omoi de Kōrai kofun hakkutsu jidai." *Tōji* 6, no. 6. (1934): 70-77.
- Morimoto, Asako. "Nihon Hakata iseki oyobi shūichiiki shutsudo no Jizō-yōkei tōjiki." In *Cizaoyao zhi: Fujian Jinjiang Cizaoyao zhi kaogu diaocha fajue baogao*, edited by Li, Sun, 409-424. Beijing: Kexue chubanshe, 2011.

- Okudaira, Takehiko. "Chōsen shutsudo no Shina tōjiki zakken." *Tōji* 9, no. 1. (1937): 1-11.
- Qingdaoshi wenwu baohu kaogu yanjiusuo. *Jiaozhou Banqiaozhen yizhi*. Beijing: Kexue chubanshe, 2014.
- Shanxisheng kaogu yanjiusuo (Shaanxi Academy of Archaeology). *Songdai Yaozhouyaozhi*. Beijing: Wenwu chubanshe, 1998.
- Shi, Yubing. "Song Yuan shiqi beifang haigang ji xiangguan kaogu yicun de chubu yanjiu." Master's thesis, Jilin University, 2017.
- Tanaka, Katsuko. "Ribei Fugang-shi Bodo yizhiqun chutu de Chaozhou-yao chanpin yu waixiao." In *Zhongguo Chaozhouyao*, edited by Bingyan, Li, 368-373. Beijing: Zhongguo huaqiao chubanshe, 2015.
- Wu, Jing, Yubing Shi, and Xiaotun Pan. "Jindai ciqi haiyun gangkou de kaoguxue guancha." *Kaogu* 10 (2018): 110-120.
- Wu, Wenda, and Xianping Gao. "Shixi Yuan-Ming shiqi Longquan qingci beiyun zhuliu luxian de zhuan yi." *Gugong bowuyuan yuankan* 265 (2024): 102-113.

4. Secondary Sources in Western Languages

- Hobson, Robert Lockhart. *Chinese Pottery and Porcelain*. New York: Funk and Wagnalls, 1915.
- Platt, John. "Korean Pottery." *The Burlington Magazine for Connoisseurs* 36, no. 205 (1920): 202-203.
- Rackham, Bernard.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 Reitz S. C. Bosch. "Recent Accession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11, no. 2 (1916): 46-49.
- Warner, Lorraine D'O.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16, no. 61 (1918): 17-20.
- _____. "Korean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6, no. 3 (1919): 46-58.

5. Database

- Fukuoka-ken no Bunkazai, <https://www.fukuoka-bunkazai.jp/>
- Kokuritsu Bunkazai Kikō Shozōhin Tōgō Kensaku Shisutemu, <https://colbase.nich.go.jp/>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유통 양상과 교역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품 약 1,300여 점과 발굴 자료 800여 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지, 품종, 기종, 수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성·해주 지역에서는 중국 남·북방 도자가 혼재하며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는 반면,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는 경덕진요 청백자, 정요 백자, 요주요 청자, 흑유자 등이 중심을 이루며, 제주 지역은 용천요 청자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즉 한반도 내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의 품종과 기종의 차이는 소비 양상과 유통 구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문헌 기록 중심의 연구에서 고려의 대중국 교역로는 1073년 이후에 절강성 명주를 출발하여 흑산도를 거쳐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서 오는 남로를 이용하였을 보았다. 그러나 중국 동북, 동남 해안의항구 유적 및 해저 출수품과의 비교를 통해 고려에 유입된 중국 도자의 출항지는 하북성이나 산둥반도의 연안 항구였을 가능성이 높고, 황해를 횡단하는 북로를 통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기존 견해와 상반되지만 당시 해상 교역의 주요 물품이었던 도자기를 통한 실증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Regional Circulation and Maritime Trade Routes of Chinese Ceramics in Koryŏ Korea (918-1392)

Kim Yun-jeo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Chinese ceramics excavated from Koryŏ -period sites to examine regional circulation patterns and reconstruct maritime trade routes. Based on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approximately 1,250 objects housed in domestic and overseas museum collections and around 800 excavated specimens, the study considers kiln site, ware types, vessel forms, and quantit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Kaesŏng and *Haeju* regions contained a diverse mixture of northern and southern Chinese ceramics and exhibited a wide range of vessel types. In contrast, the south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characterized by a predominance of Jingdezhen qingbai ware, Ding ware, Yaozhou ware, and black—glazed ware, while the Jeju region stood out with a remarkably high proportion of Longquan celadon. These disparities in types and vessel forms of Chinese ceramics excavate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clearly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patterns and distribution networks.

Furthermore, while previous literature-based studies generally suggested that the southern route—departing from Mingzhou in Zhejiang Province after 1073 and traveling via Heuksando Island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was the primary maritime route to Koryŏ, this study presents a different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excavated ceramics with shipwreck artifacts and port sites along the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coasts of China,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Chinese ceramics entering Koryŏ likely departed from coastal ports in Hebei Province or the Shandong Peninsula, traveling across the Yellow Sea via the northern route. As an empirical approach based on excavated objects, this study offers a new perspective on the regional circulation and trade routes of ceramics, the primary commodity of maritime trade during the Koryŏ period.

* Professor,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Korea University.